

## “아들아, 내 장례식엔 꼭 와다오”

### 임종 앞둔 독거노인들의 '장수노트' 보니

“내 마지막 길엔 헤어진 당신(전 남편)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이에게 연락해주세요.”(72세 김모 할머니)

“아파트 보증금과 ○○은행 통장에 든 예금은 날 돌봐줬던 조카에게 줘야해요. 내가 죽더라도 조카에게 성당만은 계속 다녀야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81세 윤모 할머니)

원한다면 구청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정부 지원금(40만 원 안팎)으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은 생을 마감하는 날을 준비하며 어떤 말을 남겼을까.

자신이 죽어도 장례마저 치러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광주시 서구청에 공영장례를 신청하며 작성한 '장수노트'(임종노트)에는 저마다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애절한 사랑이 가득했다.

모자(母子)가 동시에 장수노트를 쓴 사례도 있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55)을 평생 옆에 두고 보살핀 박모(79) 할머니의 장수노트에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한 없는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었다.

“내가 먼저 떠나거든 화장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들이 사는 동안 나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의와 영정은 장롱에 있어요. 동사무소(구청)에 어려운 부탁을 드리 죄송합니다.”

박 할머니의 아들은 “제가 먼저 죽거든 어머니를 동사무소에서 돌봐주시거나 양로원으로 모셔 여생을 보

▶72세 김 모 할머니  
“마지막 길, 헤어진 당신 와주셨으면”  
▶뇌병변 장애 아들 둔 79세 老母  
“아들이 그리워하지 않게 화장해달라”  
▶93세 할머니  
“미국 사는 아들, 나 죽으면 오려나...”  
▶81세 할머니  
“장롱에 수의 준비했으니 입혀주세요”

광주 서구청에 공영장례 신청하며 작성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담겨 “장례 부담 털고나니 오히려 흥분했다”

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모자(母子)는 둘 다 세상을 등질 경우 아파트 보증금과 통장에 든 예금은 주민센터에 후원하고 싶다고 썼다. 모자는 주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영정과 수의를 이미 준비해 뒀다고 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윤모(81·광주시 서구) 할머니도 작은방 장롱에 수의와 영정을 준비해 뒀다고

장수노트에 썼다. 장례는 천주교장으로 치러주길 바랐고 5명의 형제자매가 장례식에 꼭 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시신은 화장해 달라고 했다. 그의 장수노트에는 조카에 대한 사랑이 유독 묻어났다.

화장동에 사는 93세 신모 할머니의 실제 나이는 86세다. 할머니는 해방되던 1945년 열 일곱 나이에 혼례를 치렀는데 남편에겐 이미 총각시절 낳은 아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아들을 호적에 올리려고 나이를 7살 올려 호적에 기록했다. 할머니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 배 아파 낳은 아들·딸 이렇게 삼남매를 낳지만 지금 그의 결혼 몸이 불편한 딸만 있다. 살면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데 이어 아들 둘과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로 2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둘째 아들(59)은 할머니가 죽으면 그때나 관에 잠들어있는 어머니를 찾아오려나. 신 할머니는 “(내가 죽거든)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꼭 연락해 달라”고 장수노트에 남겼다.

광주시 서구의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공영장례 제도를 안내하자 처음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장수노트를 쓰며 장례에 관한 부담을 털고 나니 오히려 흥분한 듯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수노트에는 자신이 죽으면 꼭 연락해야 할 사람, 수의와 영정의 위치, 장례 방식, 장례에 초대할 사람 등 장례와 관련된 내용을 쓰게 돼 있다. 받을 돈, 갚아야 할 돈, 유품 처리 방식 등을 적거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적는 공간도 있다. <관련기사 3면>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軍, 가산점 2% 부활 복무기간 9학점 부여

### 병영혁신위, 국방부에 22개 혁신과제 권고... 논란 예고

국방부는 18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9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이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도 고졸 병사와 대학졸업 병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권고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심사 강화 ▲ 복무 부작용 병사·간부 퇴출 기준 보강 ▲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 행위자 처벌 강화 ▲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돼 3급 현역 판정 대상자들이 4~6급 현역 부적격 판정으로 바뀌면 연간 현역자원이 2000~3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국방 인력 유휴부문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고,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연합뉴스



“어르신들, 동지팔죽 드세요” 민족 고유 절기인 동지(22일)를 앞둔 18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 근린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주)KTCS 광주사업단원들이 어르신 1000명에게 동지 팔죽을 대접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당원·국민 25%

### 새정치 전대 선거인단 비율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8 전당대회 선거인단 비율을 ‘대의원 4.5, 권리당원 3, 일반당원 및 일반국민 2.5’로 결정했다.

일반당원 및 일반국민 비율은 국민 여론 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각각 ‘1.5대 1’ 비율로 반영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당초 일반 국민 지지 기반이 강한 친노(친 노무현) 진영은 4(대의원) : 3(권리당원) : 3(일반당원 및 일반국민) 비율을, 비노(비 노무현) 진영은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3 : 5 : 2 비율을 선호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확정된 경선 규칙은 오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의결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화상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비대위원으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김성근 전대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비대위원 3인은 계파색이 없고 중도 성향에 중량감이 있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2기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에 전념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雪花秀  
Sulwhasoo  
CAPULZEES SINCERE  
FORFRESHENING  
자여진에센스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우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 유망특허인사나 인우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시간 09:00~18:00)